



덴마크·네덜란드 왕족들의 만찬 17일(현지시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스보르그 궁(宮)에서 마그레테 여왕(가운데)이 네덜란드의 빌럼-알렉산더스 국왕(왼쪽)과 막시마 왕비 내외와 디너 파티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AIIB가 촉발한 美·中 아시아 주도권 싸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국 만류에도 영국 등 유럽 주요 동맹 잇단 참여 선언

한반도 사드배치 놓고 양국 정면충돌 등 확전 양상

유럽의 주요 동맹이 잇따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이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동맹국의 AIIB 참여를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온 미국에는 정치·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이 지난주 AIIB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도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기를 바라는 영국의 '대외 이탈'로 미국 주도의 반(反)AIIB 전선에 균열이 생긴 뒤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 유럽의 핵심 동맹이 잇따라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 국가 입장에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이외에 호주도 입장을 바꿔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양국이 AIIB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 내 경제기구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 지역 내 역할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

이다. 향후의 아시아 경제·무역질서를 누가 짜갈 것인가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기 싸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첫 시험대가 바로 AIIB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예 "중국의 돈 자석이 미국 우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면서 AIIB 출범을 21세기 미·중 간 권력 이동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2013년 AIIB 창설 계획 발표 이후 Barack Obama 대통령이까지 몸소 나서 동맹의 AIIB 참여를 반대해 온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제 다자 금융기구 체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신중 세력(rising power)에 도전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국 현황

17일(현지시간)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IIB 가입 여부는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이 양자국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AIIB와 관련해 동맹 참여 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경일변도로 나갔으며 이 때문에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IIB 대책은 주무 부처인 재무부와 더불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관여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강경한 NSC가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따라 미 정부가 앞으로 일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속한 타결, 신흥국의 입장을 더 반영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을 시도하면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주도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AIIB와 더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움직임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신중히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공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미 정부는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 내는 것이 의아하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며 날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美전쟁포로모임 “아베연설 절대 안돼”

“과거 전쟁범죄 인정부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붙잡혔던 미국 전쟁포로 출신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 전쟁범죄를 사과하기 전에는 의회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미국 전쟁포로 출신 모임의 하나인 '바탄과 코레아도전투 미국 수호자 기념 연합회'의 톰슨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재향군인위원회에 보낸 서면증언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번 상·하원 합동연설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독특한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톰슨 회장은 의회를 상대로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것이 파시즘의 원인과 전범 정권의 비인간적인 목표로 부터 일본을 구출해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아베 총리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섰던 연단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톰슨 회장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역사적 화해가 될 수 있으며 그 첫 걸음은 과거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도쿄(東京) 전범재판의 유죄판결을 거부하는 아베 총리의 과거 진술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와 국무부가 일본을 상대로 약속과 책임을 이행하도록 의회가 독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톰슨 회장은 "미국 전쟁포로 출신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에 따른 전후 외상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하나는 '전투 피로증'(폭발의 충격을 자주 겪으면 저항력의 저하와 만성화로 정신적 피로와 불안증을 보이는 증상)을 인정받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의를 세우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역사가 잊히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역사가 수정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수정하고 전쟁 포로와 관련한 미·일 간의 친선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美비밀경호국, 잇단 백악관 경비 실패에 90억원짜리 실물모형 만들어 훈련 추진

신임 국장 의회에 예산 요청

허술한 경호와 기강 해이 등으로 미국 백악관이 잇따라 괴한들에게 뚫리자 비밀경호국(SS)이 거액이 투입되는 실물모형을 만들어 요원을 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지프 클렌시 백악관 비밀경호국장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6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요원 훈련용으로 사용될 백악관 실물 모형 건설을 위해 800만 달러(90억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릴랜드 주 벨츠빌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 현 훈련 시설은 실제 백악관과 크기도 같지 않고 유사한 모양의 숲이나 분수, 차량 출입문, 바리케이드, 가로등 등도 없어 모의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 백악관에서는 20마일(30km) 떨어진 메릴랜드 주에 백악관 복제품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에 투입된다"며 "실물 모형이 완성되면 더 실제적인 환경에서 각종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국가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비밀경호국은 지난해 9월 중순 홍기를 든 남성이 백악관 내부 이스트룸(East Room)까지 깊숙이 침입한 데 이어 한 달 뒤 또 다른 남성이 담을 넘어왔을 때 이를 제때 막지 못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무장한 사실 경호원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호 실패' 논란이 휘말렸다.

이 때문에 줄리아 피어슨 전 국장이 웃을 벗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고, 클렌시 국장이 수장으로 발탁됐다.

그럼에도, 비밀경호국 고위직 요원 2명이 최근 술을 마신 채 관공차를 몰다가 백악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혐의로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클렌시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행히 지나서야 알았다고 밝혀 의원들을 경악하게 하면서 기강 해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2개 룸20개(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정문 2분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1층 상가) 주인세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 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 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 바닥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 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 2천	④ 수원지구 모야동 1111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매매가 3억 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 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유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임대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사실/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9백 (대촌산업단지 예정)
- 북구 개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8천 (투자적합)
-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배차장, 공업사, 특수)
- 북구 매곡동 (토 1,66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 동구 충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6천, 최자가 5억6천 (문화의전당)
- 상가건물 2층 → 담양군 금성면 (편선, 4명 시설) 감평가 27억~12억
- 상가건물 6층 → 광양시 중동 (중상가도로점) 감평가 26억~26억
- 상가건물 4층 → 여주시 교동 (신내중상지역) 감평가 13억~10억
- 상가건물 3층 → 충주시 성서동 (신내중상지역) 감평가 30억~12억

근린 상가

-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 순천시 정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 7천
-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 8천, 최자가 3억 8천
-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 5천, 최자가 3억 6천
-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 4천, 최자가 2억 1천
-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 9천, 최자가 3억 4천

주요소

- 서구 마루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 9천, 최자가 6억 9천 7백
- 남구 안촌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 9천
- 광안구 북동동 감평가 9억 9천, 최자가 8억 8천

토 지

- 서구 매월동 (토 1,900㎡) 감평가 3억 5천, 최자가 2억 4천 7백
-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 9천 9백, 최자가 9천 5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 오전반 (목요일) 9시30분 ~ 11시
- 오후반 (목요일) 7시 ~ 8시30분
-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 집중 엔피엘교육 (기초부터 실전까지)
- 서울 유명 교수님 초빙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